

# 전북대, 신성장동력 견인 기대감

##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 첫 삽 몸 안 매식되는 중재 의료기기 개발·평가 ‘주목’

전북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고부가가치 의료산업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에 대한 본격 선전에 나섰다.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은 환자를 수술할 때 절개를 최소화하는 의료기법인 ‘중재적 의료기술’과 외부에서 기계적 자극을 이용해 전기적 신호를 환자 환부에 집중 조사해 병이 치료되는 과정을 제어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메카노 바이오 라는 단어가 조합된 혁신적 치료 기술이다.

지난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에 선정된 전북대는 지난 20일 중재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대형 연구센터인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 건립의 첫 삽을 떴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동원 총장을 비롯해 우범기 정무부지사, 캠퍼스종합기술원 노상훈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 경과보고와 사삼 등이 진행됐다.

국비와 지방비 등 17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연구센터는 연면적 1,519.29㎡(약 450.6평) 규모로 내년 준공 예정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분석실과 개발 가공실, 클린룸, 회의실 및 사무실 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 센터는 바이오산업계, 특히 몸 안에 매식되는 3·4등급 중재의료기기의 개발과 생산 및 평가를 위해 설립된 전국 최초의 전문기관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전북 대표 특화 산업인 탄소소재 융복합 산업의 일환으로 고부가가치 탄소소재 응용 중재의료기기인 스텐트를 제조하고 평가하는 첫 센터로 지역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전북대는 중재의료기기 관련 장비와 설비 32종을 구축할 예정이다. 장비가 구축되면 침습을 최소화한 내·외과적 시술로 주입된 스텐트에 부착된 약물을 외부 구동 시스템인 기

계적 모션을 제어해 병변 부위로의 표적화 및 집중 치료를 가능케 하는 이른바 ‘탄소소재 응용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융합기술’을 주력으로 다양한 3·4등급 스텐트를 제조하고 기업지원 및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대는 전북대병원에 있는 임상시험센터와 탄소소재 생체 적합성 의료기기센터, 최근 문을 연 약학대학, 그리고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등에 이르기까지 차세대 바이오 산업을 견인할 기반을 갖추고 있어 이 분야의 시너지도 기대되고 있다.

이날 기공식에서 김동원 총장은 “이 연구센터는 탄소소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중재 의료기기를 생산 및 평가

할 수 있는 혁신기반을 갖춘 우리나라 유일의 중재의료기기 전문 생산 평가 연구기관으로, 전북을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융합기술의 글로벌 메카로 만들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업들과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경로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연구센터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전라북도가 중재의료기기 분야를 선점해 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뿌듯하다”며 “성공적인 마무리를 통해 전북도가 중재의료기기뿐 아니라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을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는 지난 20일 중재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대형 연구센터인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 건립의 첫 삽을 떴다.

## “토닥토닥, 올해도 수고 했어~”

전북교육문화회관, 송년문화행사… 28일부터

전북교육문화회관(관장 고광휘)은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토닥토닥, 올해도 수고했어~’라는 주제로 2020년도 송년문화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걱정 많은 우리 아이들을 토닥토닥 달래주는 힐링 뮤지컬 앤서니브라운 원작 ‘검쟁이 빌리’ 공연이 12월 12일 11시, 15시에 도서관 이용자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꿈이 다른 아이로 키우는 엄마표 경제교육”이라는 주제로 성유미 작가의 강연과 ‘가면’ 정해영 작가의 1인극 공연과 강연이 준비돼 있다. 특히 ‘가면’ 정해영 작가의 강연은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한 회원에 한해 회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2주간 강연을 볼 수 있는 기

회가 주어진다. 이 외에도 피부에 안보하세요~ 허리보 비누 만들기, ‘잘잘 예약! LED아크릴 무드 등 만들기’ 마스크 패션이다! 비즈 마스크 만들기, ‘푹푹 푹푹! 스트링 아트 만들기 등 4개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교육문화회관 관계자는 “2020년을 마무리하며 도서관에서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로 답답하게 갇혀있던 몸과 마음을 토닥토닥 다독이며, 앞으로도 책과 도서관을 더욱 가까이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일정 안내와 신청방법은 회관 누리집(lib.je.gakri/je)이나 독서교육과(☎270-1648)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공연, 체험 및 강연은 사전접수로 받고 있다. /정은성 기자

## 전북대 학생들 선도기업 분석대회 ‘대상’

6개 참가팀 전원 수상 쾌거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선도기업 분석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6개 참가팀 전원 이 수상하는 성과도 거뒀다. 최근 전주혁신창업허브에서 진행된 ‘제5회 전라북도 선도기업 분석대회’에서 전북대 학생 팀은 대상에 이어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전북지역의 선도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관심 확대를 목적으로 열렸다. 참가 학생들이 직접 선택한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분석 및 사업 전략, 보유 기술 등을 분석해 기업 운영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발표로 구성됐다.

전북대 ‘4T’ 팀은 ‘오디텍의 센서기술을 활용한 미래차 산업 분야 개발

제안’의 주제를 발표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최우수상에 기대해 팀, 우수상에 ‘마! 내가 데크카본다’ 팀, 장려상에 ‘성준스탕스’ 팀, ‘제본’ 팀, 입상에 ‘잡종강제’ 팀이 각각 수상했다.

4T팀 천지성 학생은 “전북지역에 우수 기업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팀원들과 함께 준비한 기업제안 내용이 실제 반영될 수 있다면 매우 기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영호 전북대 LINC+사업단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전북 지역에 있는 선도기업의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됐다”며 “학생들의 역량 강화와 지역 기업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일자리 mismatch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도내 254교 혁신시제품 보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도 석면보유(50㎡ 이상) 건축물 유지원 23개교, 초등학교 106개교, 중학교 55개교, 고등학교 67교, 특수학교 3개교 등 총 254개교를 대상으로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통한 혁신시제품(석면

관리용품) 1,200개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석면 보유 학교에서 석면 시설물이 파손됐을 때 학생과 교직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용품을 보급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또 석면건축물 안전 관리인력으로 지정된 교직원들이 파손된 석면을 긴급 처리할 때 비산되는 석면으로부터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정은성 기자

##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25일 ‘개발협력의 날’

전북대학교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센터장 신교승)는 오는 25일 ‘개발협력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KOICA-전라북도-전북대 3자간 업무협약(MOU) 협정을 통해 만들어진 기관으로, 매년 개발협력의 날을 맞아 다양한 축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11월 25일은 대한민국이 도움받는 나라에서 ‘도움주는 나라’로 바뀐 뜻 깊은 날로 한국이 2009년 11월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다. 정부는 이날을 기려 ‘개발협력의 날’로 정하고, 전북센터는 2016년부터 매년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 /정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올인

자신감 프로젝트 설명회... 청소년 상상학교 등 안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학년도 일반고 자신감 프로젝트 추진 계획 설명회를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주 그랜드힐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일반고 자신감 프로젝트는 배우고 싶은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학생 배움중심 수업으로 신나게 활동하며 함께 성장하는 감동적인 일반고를 의미한다.

도내 일반고 교감 또는 담당교사들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조성하고, 일반고 학생의 진로·적성·흥미에 맞는 다양한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교원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먼저 전주여고, 한들고, 남원국악예술고가 2020학년도 오순도순 공동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2021학년도 일반고 자신감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안내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고교학점제 도입 역량 강화 공동 재정 지원 ▲교육과정 다양화 ▲

통섭형 인재 양성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일반고·대학 연계 주말강좌 및 청소년 상상학교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진로·적성·흥미를 고려한 학생중심 교육과정 편성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을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학교별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학생의 꿈과 재능을 키워주는 내실화를 교육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 소독, 거리두기 등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정은성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